

부활의 첫 열매 예수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개역, 고린도전서 15:19~24]

본 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쌍하지요? 만약에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오늘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저기 웃는 분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분이고 아예 웃지 않는 분은 상상조차 못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오늘 뭘 하시겠어요?

경주 갔어요.

경주 갈 수도 있을 테고 꽃 많이 피어 있는 산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놀러도 많이 못 가지요. 제 친구들이 등산갈 때 꼭 제게 전화를 합니다. 못 가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해서 한대요. 학교에도 결석이 있고 병결도 있는데 아무리 교회지만 한번쯤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단 한번의 예외도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요. 같이 가면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가는 날은 마음껏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운전은 제게 맡겨 놓고 자기들끼리 실컷 마실 수가 있거든요. 술 병 하나 껴차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잔 하고 내려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답니다. 꽃피는 이 계절이 얼마나 놀러 가기에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혹시 먹고 싶은 것 못 먹는 분 계십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야 되고, 먹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 못 보는 것 있어요? 내가 교회만 안 나간다면 실컷 보겠는데 못 보는 것 있어요? 차마 교회 집사가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못 보고 안 보는 것 있습니까?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보며 놀고 싶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니까 불쌍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더군다나 지난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아무 생각없이 잘 지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난주간이라서 특별히 더 엄숙하게 지내셨나요? 제가 다니는 신대원에서 이번 주간은 가만히 놔 두어도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른 한 분이 나오셔서 "축구도 하지 말고 농구장도 가지 말고 탁구장도 가지 말고 테니스장도 가지 마세요. 고난주간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돼요. 유일하게 남은 낙이 뒷산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산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에 합당한 것이라 해서 새벽기도 마치면 우루루 몰려갔어요. 30분 짜리 등산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산에만 바글바글 올라갔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고난주간 때문에 못하신 일이 참 많으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쓰고 싶은 돈을 얼마나 많이 썼을 것인가? 돈을 많이 못 쓰는 이유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십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감사헌금 하고 십일조 했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20여 년이 넘는데... 모았으면 꽤나 큰 돈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회에 그렇게 헌금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아껴 써야지요.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불행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령, 이 글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지지리도 고생하면서 살았을까요? 바울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피로움 가운데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고요? 바울이 이 땅에서 무슨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었어요? 늘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한번 떨어져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떨어져 있어보세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은 한번 떨어져 살아봐야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 가족 없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오직 낙이라고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자신이 당한 고통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만큼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까. 주요 내용이 뭐죠? 감옥에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수로 묶여 총독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각하!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이것만 제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손이 묶인 이것이야 본을 볼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불행한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가령,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컴퓨터, 이거는 말이야, 정말 목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왜 컴퓨터가 목사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 생각하실까요? 공책에다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새로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고... 이거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르는데 컴퓨터로 쓰면, 쓰다가 틀리면 고치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 편리함을 아시는 분은 지금도 설교 원고를 손으로 쓰고 계시는 분을 보면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한 본인들은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불편하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집의 아이들한테 컴퓨터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지 한번 물어 보세요. 틀림없이 자기들 오락하라고 만든 거라고 할 겁니다. 그 아이들은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컴퓨터 없이 지낸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걸 재들은 모르고 산다? 아마 자기들 눈에는 한없이 불쌍할 겁니다. 정작 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왜 불쌍합니까? 전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너무나 불쌍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수명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죠? 대강 천년 정도로 줄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아! 이건 거짓말이다. 사람이 어떻게 구백 몇 년씩 살았던 말인가?”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원래는 죽지 않고 무한대로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천년으로 줄었다는 것은 비참해도 보통 비참해진 게 아닙니다. 무한대(∞)분의 영(0)은 0입니다. 수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무한대 분의 영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구백 몇 년 살았으니깐 너무나 많이 살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어디에 기준을 두니까요? 겨우 백년도 못 사는 우리에게 비하니까 너무나 오래 살았죠.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구백 얼마씩 살았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우리는 백년 사는데 십년 밖에 못 사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원숭이처럼, 산에서 원시인처럼 살다가 이렇게 발달했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아담은 원숭이처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높았습니다. 짐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같으면 도대체 몇 종류의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뭐가 제일 어렵겠어요? 지상에 있는 짐승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이 짐승들을 줄 세워 놓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얼마나 붙이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일 어려운 것이

단어 부족 아닐까요? 이름을 몇 개쯤 붙이면 밀천이 딸릴 것 같습니까? “야, 너는 소, 너는 개, 너는 말...” 얼마쯤 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죠? 얼마 못 갑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내가 저놈한테 이름을 붙여줬나 안 붙여줬나 헛갈리기 시작하거나 어느 놈한테 뭐라고 이름을 지어 줬는지 모르면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손자가 이십명쯤 되면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우리 큰집에 사촌들이 일곱명인가 됩니다. 어릴 때 보면 큰아버지나 큰어머님이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바로 딱 찍어서 못 불러요. 항상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쭉 불러 가다가 찾는 애 이름이 걸리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많은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아들 몇 명 가지고도 이러한 판에 그 많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일일이 붙였다는 것은 보통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항상 머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이 무거운 머리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뇌, 골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두뇌를 많이 쓰면 3%, 아주 많이 쓰면 5% 쓴답니다. 쓰지도 않을 머리를 왜 무겁게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다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금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사용하면서 IQ가 100이면 보통이고 IQ 200이면 몇 백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요? 겨우 5%-10%만 쓰는데요? 이것을 100% 다 쓴다면 IQ가 20배, 30배로 뛰니다.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벌을 받아 사용 부위가 엄청나게 축소되어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산 게 아닙니다. 그만한 머리가 있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쭉그러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모습만 보고 행복하니 불행하니 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인데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참한 상황 속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셨던 놀라운 모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다 잃어버린 채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려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장 불쌍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그 놀라운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참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마당에, 없어져 버린 감나무 한 그루 있었죠. 지난 겨울에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내년 봄에 싹이 날까? 안 날까?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그 감나무가 허리까지 파묻힌 나무입니다. 땅을 많이 돋워 올리면서 허리까지 잠겨 버렸거든요. 이렇게 깊이 파묻혔는데 싹이 날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나무는 껍질이 안되기 때문에 많이 묻히면 중간에서 뿌리가 안 나서 결국은 죽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는가보다 하고 생각했죠. “저거 안 베어 버리나”하고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아마 독이 올라서라도 저 나무는 제명에 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를 차로 박은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심지어 혼자서 세 번이나 박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렇게 차에 받히고 눈총 받고도 살아나겠나 싶더라고요. 이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늘 궁금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파란 순 하나가 빠져 나오는 거 있죠! 그 순 하나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요게 끝내 사는구나.” 그 순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무 전체에 이런 순들이 많이 나온다고

는 것을 의미하죠. 그 순 하나는 앞으로 무성한 잎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혼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살아나셨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같은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과일 나무를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다고 바로 열매 맺히는 거 아니죠? 몇 년은 걸립니다. 몇 년 걸리는 동안 농부는 참 궁금할 겁니다.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며 맛은 어떻고 향은 어떤런지... 그러나 어느 날 열매 하나가 맺히는 걸 보면 ‘됐구나’ 싶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 있을 그 때에도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 기입니다. 15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증인들이 있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전혀 없음에도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안 믿어지신다구요? 안 믿어지시면 참 불행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이 주어도도록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한번 매어 달려 보십시오... 그것이 믿어진다면 엄청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 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 에 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여기서 ‘나중이니’ 하는 표현은 이해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말이 있을 때에는 아 오늘 하나... 표현이 조금 안됐습니다마는 ‘오늘 하나 건졌다’라는 느낌으로 묵 상도 하시고 다른 성경과 비교도 해 보시고 꼭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 가면서 읽어야 할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중이니’ 하는 표현의 의미는 ‘그 후는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후 면 마지막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중이니 하는 표현은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 구절 들의 내용들을 요약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는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무어라 묘사를 해 놓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러 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 것 같습니까?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 시에 죽었던 사람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요? 그 다음도 한번 봅시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에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22 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하죠?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살아 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만들었던 그 모습과 비교하면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입니다. 내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죽었다구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 람입니다. 잠자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죽은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난 후에 24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멀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완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가졌던 사탄의 권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나타나셨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근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문이 꼭, 꼭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장차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을 다 잠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고생하는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처럼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귀신처럼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사고 본론이 무엇이난 말입니다. 한 일? 거기서 축복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죽으신 이후에 보고 들은 것이나 지옥 갔다 온 이야기 하셨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흘동안 잠수신 게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정말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맞습니다. 먹을 걸 찾으셨어요. 왜요? 배고파서요?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모처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먹을 것을 요구하시나요?

귀신이 아니란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육신이 멀쩡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겁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라 몸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으셨고 잠수셨다는 겁니다. 거기 없던 도마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품에 손을 넣어보고 그 흔적을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져 보니까 아니면 음식 잠수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몸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는... 가실 때에는 어떻게 가셨죠? 가실 때에는 말없이 또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성경은 언젠가 이 몸을 장막처럼 벗어버릴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여 갈 것이라는 예를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일에 창세기 공부도 있고 계시록 공부도 있는데 뭐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의논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창세기 공부를 하고 한쪽에서는 계시록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복은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요...

제가 뭘 알아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공부합시다 하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도 보고 계시록도 보니까 제가 받는 충격이 참 놀랍습니다. “아하! 이게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참 놀라워요. 복은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은혜도 더 많이 받아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창세기도 보시고 계시록도 다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강을 따라서 달마다 열두 과실을 맺고 있습니다. 황금 보석 밟고 다니실 것만 생각하시죠? 회복된 낙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 기분 좋으려면 어디를 가라고 하죠?

이발소

맞습니다. 이발소 가면 하루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발소도 잘 만나야 합니다. 자동차 처음 사면 기분이 참 좋지요? 지금은 영 형편이 없는 차지만 저 차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집 아이들이 그 차에 가서 놀았습니다.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그냥 잔데요. 그 기분이 얼마나 잡니까? 요새는 탈 때마다 무슨 냄새가 난다나요?

우리 어머니가 늘 셋집에 사시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모처럼 전셋집을 좀 넓은 것 하나 얻었습니다. 집 산 거 아니에요. 나루 끝에 전셋집을 하나 얻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야, 좋다 정말 좋다.” 뭐가 그리 좋은지 아십니까? 방이 좀 큰 게 좋은 이유입니다. 이불을 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불을 퍼지 말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다니면 좋겠다는데 방이 넓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 전셋집인데요. 하긴 그럴 만도 할 겁니다. 아들 다섯에 부모님까지 일곱이 한 방에서 같이 누웠다 하면 잠깐 때까지 차렷 자세를 해서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여자 형제가 없었다는 게 그때에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고 난 다음에 넓은 방 하나 얻어 가지고 뒹굴뒹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가나요? 얼마쯤 지나면 “집을 하나 사야 할 텐데...” 새 집을 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조금 있으면 평수를 조금 넓혀야지요.

이번 주간에는 아마 “실컷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쩐 일인지 다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이은 부활절 행사를 잘 마쳤으니 만사를 제쳐 두고 실컷 한번 자 보십시오. 그러나 조금만 더 자면 잠 많이 자는 것도 얼마나 고역인지 모릅니다.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지요. 개꿈이란 개꿈은 다 꾸지요... 이 땅에서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0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제가 들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게 “아이고 죽겠다”입니다. 심지어 “요새 어느 교회가 40일 새벽기도를 하노?” 하는 말도 들었어요. “아이고 죽겠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 2주만 지나니까 입술이 터지는 분이 있던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정도 가지고 죽겠다, 디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고생을 별로 안해 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고생요? 무슨 고생인지 아십니까?

장사하는 두 집이 나란히 있는데요 한 집에는 손님이 바글바글... 쉴 틈도 없어요. 이 주인 하구요, 옆집에는 손님이 전혀 없어요. 하루 종일 파리만 잡고 앉았습니다. 누가 힘들까요?

파리 잡는 집 주인

아니? 파리 잡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은 힘들고 몸은 힘 안 들겠네요? 몸은 편하겠네요? 한 집에는 손님이 바글바글 하구요 한 집에는 손님이 전혀 없어요. 누가 더 피곤하냐 말이죠? 손님이 없는 집이 더 피곤해요. 가만히 파리만 잡는 것이 몸이라도 편하면 다행이게요, 마음만 피곤한 게 아니라 몸도 더 피곤합니다. 손님이 바글바글 하는 집 주인이 손님 없는 집에 가서 “아휴 힘들어 죽겠다” 하면 잘못하다가 맞아 죽어요. 누구 약올리는 겁니까? “아휴 힘들어 죽겠다. 이제 손님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때 손님이 없어서 힘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아휴 힘들다, 디다” 소리 안 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어 보지 않은 분은 손님이 많이 오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디다, 이런 분들은 진짜 힘든 것을 못 봤겠구나,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모처럼 교회다운 교회 만나서, 믿는 것처럼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분들은 말만 ‘죽겠다’ 하고 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속이 다 보이니까요. 전 아예 그런 말도 꺼내지 싫어요. 물 만난 고기가 물이 너무 많다구요. 돌아다녀야 할 공간이 너무 넓다구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또 하나는 “아이고 디다[고되다]” 하면서 안 오면 될 건데 꾸준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젠 달리 말하면 칭찬을 좀 듣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 혼자 생각입니다. “디다, 디다, 입이 터진다” 어쩐다 하면서 잘 나오시거든요. 새벽기도 광경을 한번 보세요. 주일 낮예배와 다른 게 있는가? 누가 “효자제일교회는 꼭 공산당 같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공산당의 특징이 뭐죠? ‘모여’ 하면 쪽모이고, ‘해산’ 하면 쪽 헤어지고, 새벽기도 시간에 흰옷에다가 양복을 입고,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주차장이 꼭 찾습니다. 이거 공산당이 아니냐는 것이죠? 글썄요,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뭐 잘못된 거 있느냐구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몸은 고달프고 힘들고 교회를 위해서 아까운 것 다 내어놓고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때 파리만 잡으면서 힘들어 했던 그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이제 손님이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서 ‘아이구 힘들어 죽겠다?’ 어렵도 없지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현실의 이러한 복도 있지만 먼 훗날에 그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스스로 겪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거요? 정말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이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정말 좋아하던 선생님에게 무언가 잘못해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실수했거나 잘못하였을 경우에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매맞는 것은 오히려 시원한 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학생들을 데리고 가끔씩 수학여행을 가 봅니다. 학교끼리 패싸움이 잘 붙어요. 그래서 가끔 당부를 합니다. “얘들아 패싸움을 할 때 하더라도 저런 학교 하고는 절대로 하지 마라” 어떤 학교요? 공학입니다. 남녀공학하고 싸움을 하면 저쪽이 숫자가 훨씬 작아요. 숫자가 작다고 해서 패싸움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왜 안되는지 아세요? 남녀공학 학교의 남학생들은 일단 싸움이 붙었다 하면 후퇴를 모릅니다. 왜 못해요? 여학생들 때문이에요. 거기서 후퇴를 하고 도망을 갔다가는 여학생들한테 평생 찍힙니다. 그 눈이 무서워서 후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을동살동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 애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반 협박적으로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것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적절한 예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남학생, 여학생 사이도 이러하거든 완벽한 사랑을 나누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할 때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로마병정들에게 당했던 수모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버려진 아픔이든지 이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알고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도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를 이토록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냈다면 모르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 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 주시며 우리에게 더 휘황찬란한 부활이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조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예배에, 기도에 좀 더 열심히 출석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우리 앞에 이 놀라운 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주지 못하는 참다운 기쁨이 우리의 것입니다.